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대응(3)

농가 보상 등 양계업 안정화에 총력을...

경북, 제주 외 전국 AI 강타!

201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국내에 상륙한 고병원성 AI가 지난 1월 27일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되고 육용오리, 토종닭, 육계는 물론 산란계까지 확산되면서 살처분 수수가 400만수를 넘어섰다. 2월 21일 현재 27건이 고병원성 AI로 신고되어 21건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경상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AI가 발생되었다. AI 발생기간을 보면 2003년부터 5차례 발생되면서 짧게는 42일, 길게는 139일까지 지속된 바 있어 평균 97일 동안 양계업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발생건수를 보더라도 적게는 7건에서 많게는 53건으로 평균 3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거의 예로 볼 때 AI종식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AI가 발생된 지 1달이 지나면서 AI관련 방송회수가 줄어들어 발생 보도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정부와 가금관련단체들은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AI관련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가하면 대형할인마트들이 동참한 가운데 닭고기, 오리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양계, 오리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20~80% 차등지급

하지만 한 전에서는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정부를 향해 전량 수매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가 하면 살처분 정책에 항의하며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들까지 나타나면서 AI 긴급행동요령(SOP) 및 전체적인 방역 및 보상 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살처분 보상과 관련하여 AI 양성판정 시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고, 소독이나 이동제한 등 방역의 무 불이행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20~60%까지 차감되어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또한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일부 농가에서 사전에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농가들도 나타나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상규정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시 보상비를 80%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문제는 상당부분 농가들이 외국인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데 있다. 구조적인 모순을 없애지 않는 한 피해는 농가들이 볼 수밖에 없다.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3km를 살처분하는데 대해서도 정부와

농가들 간의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 건의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방역협의회의 전문가(조류질병 대학교수, 가금질병 연구소장 등)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가들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선택적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제한 농가 구제책 충분한가?

매번 AI가 발생하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동제한에 속한 농장, 도계장, 부화장 등이다. 육계, 토종닭의 경우에는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21일간 묶여있어야 하므로 출하를 목전에 둔 5만수 규모의 농가가 이동제한에 걸리게 된다면 1일 최저 150g을 섭취하므로 사료가격이 kg당 530원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에 최저 400만원씩의 사료비가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21일 동안 묶여 있으면 8,400만원이 소요되며, 닭은 중량 초과로 이미 상품성을 잃어 출하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

르게 된다. 종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오래 보관될수록 부화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책임으로 돌아간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동제한 및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안정자금은 5,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육계와 삼계는 37일 이상, 토종닭은 77일 이상의 닭에 한해 출하가 지연되면 닭은 1일 수당 12원, 토종닭은 18원이 산정되어 지급된다. 가축입식자금 지원금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단가는 종계병아리 4,000원, 실용계 병아리 700원이 책정되어 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역시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농가나 업체는 시도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I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농가들에게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농가들도 방역의식을 갖고 AI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업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AI대책특별위원장
김 춘 진 의원(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장(민주당)인 김춘진 의원은 2004년 이후 고창·부안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촌의 노인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김춘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19대)으로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법을 영구화해야 함을 밝히며 지난 2012년 12월 6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AI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는 1, 2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AI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AI 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축산물위생법과 가축전염예방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AI 의심신고에 따른 살처분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춘진 의원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과 13일에 진행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춘진 의원은 AI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을 들어봤다.



▲ 김춘진 의원이 제1차 정부 AI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

살처분 대상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대책 나와야 한다

지속적으로 AI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AI 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할 계획
양계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을 위한 자조금의 활성화 필요

■ 국회에서 AI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AI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는 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현재까지 진행하신 활동이 궁금합니다.

지난 1월 17일 고창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후 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AI 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는 지난 1월 23일에는 제1차 간담회인 '정부 AI 상황 점검 및 대책 보고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AI발생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AI발생 현안에 대해 상임위 질의를 통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제2차 간담회인 'AI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출하포기 가금류에 대한 가금류 전량 수매 촉구' 성명서를 지난 2월 7일에 발표하여,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가금 농가들이 출하시기를 놓쳐 출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축이동제한지역 내 가금류에 대해 정부 수매 및 관련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AI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금 농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AI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금관련 농가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I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지원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의 보상금은 각 시군구에서 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한 후 시군구에 신청을 하고, 또 시군구는 상위 시도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고 난 후에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들은 보통 1~2개월이 걸리므로 피해보상금을 받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월 23일 상임위 질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 살처분 피해보상금의 선지급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AI 판명 농가가 재입식 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17일에는 보상금의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납품 물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기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밀도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해소하도록 공영도축장을 설치운영하고,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이도계장 설치 근거를 마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17일 발의하였습니다.

■ 정부 예산낭비를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OP를 개정해 일본처럼 발생농장만 살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처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처분 보상과 더불어 살처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는 일본이나 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살처분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양계농가들은 현재 AI뿐만 아니라, 수입산 닭고기의 유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산 닭고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먼저 양계분야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조금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양계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추가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지원 시 계열사가 아닌 양계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부화중계업의 경우 신고제와 등록제로 완화된 사항을 허가제로 전환시켜 양계의 근간인 종계부화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요?

정부는 매년 '상세예찰 추진계획 매뉴얼'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최초 발생지인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예찰 이후 12월에는 농장들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AI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AI 발생 후에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초기대응이 부족하여 확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매뉴얼들에 대해 재검토하고 미비점들에 대해 개선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 간의 협조체계도 빠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HOT
ISSUE

0 0 2

AI로 고통받는 양계, 오리농가 살리기 소비홍보 캠페인 실시

“안전하고 맛 좋은 닭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대형마트들 캠페인 동참

AI로 고통받는 양계, 오리농가를 돕기 위해 가금관련단체 및 관련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금관련단체((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과 함께 닭고기(오리 포함) 할인행사 및 염가세일을 진행하며 닭고기 소비촉진 활동에 나섰다.

롯데마트에서는 105개 전국매장을 통해 지난 2월 11일부터 16일 동안 가금관련제품에 대해 50% 할인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가금관련단체 AI방역TF팀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이번 행사에서 AI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가금류 30만 마리 물량에 대한 긴급 매입을 실시하고 행사상품 매입금액을 조기 지급한 후 행사 매출의 일부를 양계, 오리업계에 기부하는 등 가금 산업의 희생에 동참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는 가금관련단체장 및 김춘진 국회의원(AI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맛 좋은 닭고기를 전해주며 AI로 인한 닭고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참석자들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의 시식행사가 끝난 후 식당을 찾아 닭고기 요리를 시식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전매장 닭고기, 오리고기 제품 40~50% 할인판매

지난 2월 13일에는 가금관련단체((사)한국계육협회 주관)는 AI 여파로 인한 닭고기 소비부진을 해소하고자 이마트와 함께 ‘닭·오리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전국 이마트 143개 매장에서 국내산 신선 닭·오리고기를 기존 판매가격보다 4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2월 13일(목)에는 이마트 성수점에서

실시한 닭·오리고기 시식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비롯해 가금관련단체장과 계열화사업자 대표이사 등 축산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시식행사 후 매장투어를 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한다면 가금농가의 AI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닭고기 소비를 호소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가금관련단체들과 함께 13일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캠페인을 갖고 AI로 고통받는 양계, 오리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전 매장에서 판매하는 닭·오리고기 제품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50% 이상 할인가격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 역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가금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대변인, 기자들도 동참

지난 2월 14일에는 42개 정부 부·처·청 대변인들과 출입기자단도 소비가 크게 줄어든 닭·오리고기 홍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회원 및 가금관련단체((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도 함께 참여해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고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이날 닭고기나 오리고기 요리를 먹는 장면을 담은 ‘인증사진’을 갖고 온 네티즌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치킨교환권’을 증정했으며, 남태현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이나 사탕 대신 축산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사드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금관련단체들은 가금산물 소비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와 연계해 지속적인 홍보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
비
홍보행사
이 모 저 모

닭·오리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식행사(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마트 시식행사 후 삼계탕을 시식하고 있는 모습



닭·오리 농가돕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이마트 성수점)



국내산 닭·오리고기 범국민 소비촉진 캠페인(농협 하나로클럽)



하나로클럽 행사 후 닭고기를 시식하고 있는 모습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진행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정부 부·처·청 대변인들이 거리로 나와 닭·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모습

HOT
ISSUE

0 0 3

“농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가금관련단체, 연합뉴스 앞서 추측성 및 과대 보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가금관련단체들이 언론의 무책임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과대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7일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도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등 가금관련단체들은

연합뉴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의 인체감염을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결국 닭을 출하하지 못한 농민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며 연합뉴스의 보도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는 지난 2월 4일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를 설명하며 인체감염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실어 국민들에게 AI공포를

확산시킨 바 있다. 이후에는 관련 기사를 타 언론사들이 확대 재생산하여 가금 농가들의 피해는 가중되었다.

기자회견에서 가금관련단체들은 “원치 않은 AI 발생에 국내 언론이 인체 감염을 언급하며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언론독감으로 소비는 급감해 더 이상 판매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AI 인체감염을 운운한 질병관리본부와 서상희 교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AI 인체감염 최초의 보도자인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와 온갖 추측성 보도를 한 타 언론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금관련단체 관계자는 “언론의 과대 보도로 인해 AI 불안 심리가 조장

되어 민심이 돌아서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성난 농민들은 연합뉴스에 그 책임을 물어 출하하지 못한 닭을 연합뉴스 등에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닭고기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식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가금관련단체들도 유통업체들과의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AI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금관련 단체 및 농민들이 언론들의 추측성 및 과대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 홍보동영상 통해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에 나선다!



농축산부, 공중파 방송 등에 방영해 국민들의 AI 인식개선에 큰 역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AI 홍보동영상을 각 방송매체에 방영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AI가 발병하자 지난 1월 말 자체 기획을 통해 AI 예방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에 착수했다.

이후 농축산부는 자체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알고나면, 걱정 뚫!’이라는 AI 홍보동영상을 자체 제작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협업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해선 걱정마세요!’라는 AI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다.

‘AI(조류인플루엔자) 알고나면, 걱정 뚫!’ 제목의 AI 홍보동영상에는 MBC 박나림 아나운서와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가 출연하여, 국내 AI 인체 감염사례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AI방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해선 걱정마세요!’라는 AI 홍보동영상에는 조재호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 부실장이 출연하여, 국내에서 AI인체감염이 없음을 밝히고 AI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의 행동요령(철새도래지 방문 자체 등) 및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협조를 요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AI 홍보동영상은 공중파 방송 및 종편방송, 뉴스전문 채널과 라디오 방송(음성)에서 방영되고 있어 AI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AI 홍보동영상은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각종 홍보동영상 및 홍보물들을 통해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및 농가의 방역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제는 AI 홍보동영상을 통해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춘천닭갈비협회, 닭갈비의 안전성 홍보 위해 시식행사와 소비촉진행사 실시



식중독 오보와 AI 사태로 매출 급감에 춘천 닭갈비 업소 울상

최근 식중독 오보로 매출이 급감한 (사)춘천닭갈비협회 측이 적극적으로 닭

갈비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질병관리본부는 홍콩과 대만 관광객 30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이들이 춘천의 한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 10일에는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에서 춘천닭갈비 식당의 위생상태를 지

적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면서 춘천의 닭갈비 업소들은 매출이 급감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춘천시는 자체조사 결과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관광객들은 닭갈비가 아닌 돼지갈비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청이 적극적으로 춘천닭갈비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나서면서 지난 1월 28일에는 춘천시 명동의 한 식당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도 내 공무원

80여 명이 닭갈비를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춘천닭갈비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13일 춘천시청,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 춘천닭갈비업소 모임인 계명회 등과 함께 춘천 명동에서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과 춘천닭갈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사)춘천닭갈비협회 우중동 사무국장은 2월 말부터 한 달 간 춘천닭갈비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해 춘천닭갈비의 안전성 홍보 및 매출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축산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농축산부, 각 축종 자조금과 축산물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가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축산부는 국내 축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오해 및 저평가를 불식시키고 축산물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축산물 및 축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육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채식주의가 부각되고 있어 국민들의 영양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캠페인의 주요타겟층은 질적인 축산물 소비자층인 30~40대 남녀이며, 미래의 소비자층인 10~20대 남녀가 2차타겟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산부는 각 축산 자조금관리위원회

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로드맵이 3개년에 걸쳐 TV광고 및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에 방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TV광고 시에 일반적인 상업광고와는 달리 방송사와 협의하여 상업광고(15초)보다는 긴 광고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진정성있는 광고 메시지를 반복 노출하는 TV캠페인 광고로 진행하고 밝혔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축산물의 진면목을 심도있게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축산물의 우수성을 폭넓게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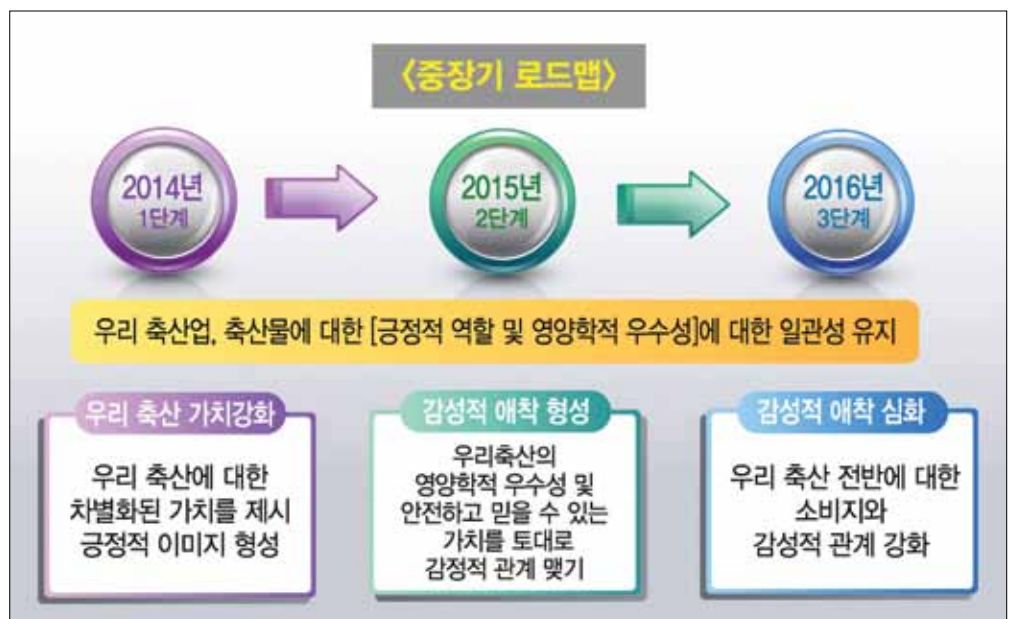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농축산부는 축산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홍보의 시너지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축종별로 자조금 TV광고 및 포스터를 제작할 경우 사업 집행 시에 통합슬로건을 광고에 삽입

하기로 했다.

한편 각 축산자조금 위원장 및 실무자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축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오해 부분과 축산업이 혐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 축종이 공동으로 대응하며 개선해

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축산물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축산물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축산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육계질병가이드 / 감보로병 질의응답사례

‘감보로병 상담사례’ 기사를 보신 한 농장주께서 전화로 ‘감보로 백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워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Q. 감보로병 백신을 구분할 때 말하는 강독, 중간독 플러스, 중간독, 약독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농장에 적용할 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농장에서 사용되는 감보로 생(生)백신은 대부분 약독화백신입니다. 즉, 야외에 돌고 있는 감보로 바이러스 중에 백신으로 사용할 만한 바이러스를 골라서 약(毒)화시킨 후에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보로병 백신을 강독, 중간독 플러스, 중간독, 약독으로 구분했을 때의 의미는 이 감보로병 바이러스가 얼마나 약화되었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독형 백신이라면 덜 약화시켜서 아직 병원성이 강하다는 뜻이고 약독형 백신이라면 많이 약화시켜서 병원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중간독 플러스형 백신과 중간독형 백신을 사용하지만, 업체나 수의사에 따라 강독형, 중간독 플러스형, 중간독형, 약독형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분기준이 자로 켜 듯이 딱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누가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독 플러스형 백신은 후유증(백신 접종후반응)이 있는 대신, 상대적으로 더 높은 면역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간독 백신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은 낮지만 후유증이 적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감보로병이 발생한 농장은 중간독 플러스형 백신을 사용하여 후유증이 약간 있더라도 감보로에 대해 강한 면역을 생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감보로병이 없었던 농장은 중간독형 백신을 사용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프로그램 역시 중간독 플러스형이나 중간독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는 백신이 중간독 플러스인지 중간독인지를 확인한 후 수의사와 상의하여 접종일령을 조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감보로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 powerseeker@hanmail.net)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또래오래, 다양한 이벤트 통해 소비촉진과 홍보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벤트 게시판 활용해,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제품홍보에 주력

농협목우촌의 치킨 브랜드 ‘또래오래’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자사 치킨을 홍보하고 있다.

또래오래는 또래오래 홈페이지 내에 있는 또래오래 이벤트 게시판에 매주 3종류의 이벤트를 올리고 있다. 우선 ‘게릴라 퀴즈’에서는 새롭고 재미있는 퀴즈를 낸 후 퀴즈 참여자 중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매주 2명에게 또래오래 치킨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끼리 공감댓글’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참신하고 재미있는 댓글을 적어준 고객에게 또래오래 치킨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둘째 주 중에 진행된 ‘우리끼리 공감댓글’에서는 “(소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태극전사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세요”라는 주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댓글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 없이 4년간의

노력을 모두 쏟고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또래오래 먹으며 응원할게요(ID:jd4022)”라고 작성한 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치킨을 소비하겠다는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다.

또한 또래오래는 ‘포토 갤러리’를 통하여 또래오래 치킨을 맛있게 먹는 모습 등을 담은 멋진 글과 사진을 올려준 이들에게 또래오래 치킨 한 마리 교환권을 증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자 게시판에는 부드러운 가슴살과 쫄쫄쫄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누구나 부담없는 ‘참쌀양념치킨’의 사진을 올린 고객의 글이 채택되었다.



▲ 또래오래 참쌀양념치킨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자조금, 올바른 닭고기정보제공 사업 사전집행 승인

닭고기자조금 통해 지역행사 지원

2014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인 올바른 닭고기정보제공 사업이 사전집행 승인되면서 조기 사업진행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양계산물 소비 감소로 양계산업 전반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올바른 닭고기 정보제공(지역별행사)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

역별 닭고기 소비행사 추진에 따라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 홍보 및 AI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닭고기관련단체들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대규모행사와 모임 등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행사진행에 앞서 해당지역의 지자체와 차단방역 방법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사)대한양계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Tel : 02) 588-7651>

(사)대한양계협회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산단체 반대 의견 개선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안 심사 보류키로

지난 12월말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로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액비자원화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액비의 품질기준을 비료관리법의 적용대상범위에 넣고,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생산된 가축퇴비비료를 제외한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생산한 가축분뇨퇴비를 '처리분뇨'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축산분뇨를 환경오염물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비료관리법의 규제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정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시키면서 농업자가 아닌 중소기업

자도 생산자단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안이 주로 퇴비생산업자의 입장에 편향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축분자원화를 서두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축분뇨의 규제강화와 비료생산업자들의 이권확보를 우선한 개정안에 본회를 포함한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전면 개정법률안 철회와 전면재검토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법령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지난 2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이에 박민수 의원실에서는 축산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령개정안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일단락되었다.

양계농가 고병원성 AI방역철저 당부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회원농가들에게 고병원성 AI 방역철저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철저와 병아리 운반 시 1회용 종이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전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되, 시장 군수에게 승인받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닭과 오리농가에 가축 및 사료운반 시 차량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본 협회는 고병원성 AI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시어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사육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닭·오리 사육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 진행 모습

‘SBS 생활경제’ 뉴스를 통해 이원 중계 방영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지난 2월 13일(목) 이마트와 함께 진행했던 ‘닭·오리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SBS 생활경제’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이원 중계 방송되었다.

‘SBS 생활경제’는 주부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생활뉴스 프로그램으로, 이마트 성수점에서 진행된 이 행사의 이원 중계 방송은 농가를 응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이동필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소비자들이 실질적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닭고기 할인판매 정보가 함께 구성되었다.

본 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행사의 이원 중계 방송을 통해 안전하고 맛있는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AI에 대한 국민 불안 및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금육에 대한 소비를 정상화시켜 닭·오리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파워블로그 통한 닭고기 할인판매 정보를 온라인 통해 홍보 실시

‘닭·오리사육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주부층을 대상으로 진행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AI로 인한 닭고기 소비부진을 이겨내고 판매 정상화를 위해서 닭고기 소비의 핵심 소비층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했다.

할인 행사 첫날인 지난 2월 13일(목)에 10명의 주부 파워블로거가 이마트 성수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닭고기의 할인 판매 현장을 경험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들은 실구매층 시각에서 주부들이 원하는 자세한 가격정보 및 판매 정보에 대해 사진을 찍는 등 정보를 수

집하여 이를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였다.

본 협회는 일평균 7천명 이상의 방문자를 보유한 파워블로거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국산 닭고기 40% 할인판매 정보가 하루 7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파급될 것이며 이를 통해 AI에 대한 불안 및 오해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주부들의 마트 방문을 통해 소비가 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계 올림픽 기간에 안성맞춤인 닭고기를 소비하자는 권유글을 덧붙여 올림픽 시즌의 대표적인 먹거리로서 닭고기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개그콘서트’, 소치 월드컵의 ‘소주 치킨’ 문화 언급



‘개그콘서트’에서 유쾌한 웃음으로 소치(소주+치킨) 문화를 전달하는 장면

TV 예능오락부문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로 ‘소치’ 문화 확산 기대돼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시청률 20%에 육박하는 KBS2 예능프로그램 1위인 ‘개그콘서트’를 통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소치올림픽과 관련하여 닭고기 이슈를 부각시켰다.

본협회는 올림픽 개막과 함께 AI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소치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소치(소주+치킨)’ 문화를 각종 방송 언론에 전달 및 요청한 결과 지난 2월 16일(일) 저녁 9시 10분에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에서 소치올림픽을 주제로 소치 문화를 언급했다.

‘소치’ 문화는 전 국민이 즐겨보는 오락

프로그램 ‘개그콘서트’를 통해 소치올림픽의 열기를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소치(소주+치킨) 문화를 유쾌한 웃음을 주는 개그요소로 가미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 AI로 인해 닭고기의 잘못된 정보 및 오해를 해소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며 본 협회가 기획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문화이다.

본 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소비자가 친근하게 인식하고 있는 치킨과 맥주 문화에 이은 소치 문화(소주와 치킨을 함께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첫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첫 사랑 수지의 닭고기용 태극전사 응원 맞춤 편집



소치 동계올림픽에 맞춰 소비권장 메시지를 담은 ‘닭고기 캠페인송’

소치 올림픽을 겨냥하여 중계 직전 방영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 직전에 편성된 SBS ‘스타킹’(토요일, 오후 5시 5분~) 및 SBS ‘도전전곡’(일요일, 오전 8시 10분~)에 태극전사 응원 메시지를 담은 닭고기 캠페인송을 2월 15일, 22일 총 4회 송출했다.

본 협회는 기 제작되었던 닭고기 캠페인송을 소치 동계올림픽에 맞춰 ‘닭고기를 먹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자’라는 직접적인 소비권장 메시지를 담아 편집하였으며, 이를 소치 올림픽 기간 시청률이 높은 주말 올림픽 중계 시간 직전에 삽입하여 더 높은 광고 효과를 이끌어 냈다.

이 콘텐츠는 별도의 비용없이 기존 닭

고기 캠페인 송 콘텐츠를 간단히 편집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AI의 타격이 가장 큰 중·장년층이 주로 보는 SBS ‘도전전곡’과 전 연령층이 즐겨보는 국민 오락 프로그램 SBS ‘스타킹’ 내에서 방송되도록 하여 시청률과 집중도를

보완한 효과적인 홍보가 되었다.

본 협회 정병학 회장은 “재편집된 닭고기용이 올림픽 시즌 전 소비층에게 닭고기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태극전사를 응원할 때 떠오르는 음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한닭’ 홍보를 위한 토종닭 특강 요리 교실 개최



토종닭 요리교실에서 규아상과 초계탕을 먹고 있는 모습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2월 6일(목) 이마트홍덕점(용인시)에서 ‘한닭’ 홍보를 위한 토종닭 특강 요리 교실을 개최하였다.

토종닭 ‘한닭’ 소개와 함께 현재 AI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닭고기 안전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날 메뉴는 토종닭 규아상, 토종닭 초계탕을 선보였다.

강의 후 소통의 시간을 나눔으로써 수

는 AI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닭고기 안전함을 강조하였고 모두들 인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수강생들은 건강한 밥상에 딱 어울리는 우리 토종닭 ‘한닭’ 요리에 다들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토종닭요리 특강이 가능하면 더 자주 열리길 바란다는 소감도 전했다.

이번 토종닭 요리 교실은 앞으로도 19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닭·오리고기 시식회 참석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지난 2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닭·오리고기 시식행사’에 참석했다.

기와 오리고기 시식회를 가졌으며, 본 협회도 토종닭을 선보여 소비촉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닭·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닭고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날개 콩나물찜

콩나물은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다른 식품의 요리에서 부피를 늘리는 증량재료로 사용되어 닭고기와 사용되면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좋다.

재료 닭날개 400g, 콩나물 300g, 느타리버섯 50g, 미나리 100g, 대파 1대, 풋고추 2개, 붉은 고추 2개, 찹쌀가루 6큰 술, 육수 1컵, 통깨
닭고기양념 간장 1/2큰 술, 청주 1큰 술, 양파즙 2큰 술, 후추
양념 고운고춧가루 4큰 술, 육수 4큰 술, 다진마늘 1½큰 술, 다진생강1/2큰술, 청주1큰술, 국간장1/2큰술, 설탕1/2큰술, 깨소금1큰술, 참기름1/2큰술, 후추1/4작은술, 소금 1작은술

Cooking

1. 닭날개는 칼집을 넣어 간장, 후추, 양파즙, 후추로 간을 하여 냄비에 담아 약간의 육수를 부어 익혀 놓는다.
2. 콩나물은 거두절미하여 끓는 물에 삶아 건진다.
3. 미나리는 5~6cm 길이로 잘라 놓는다.
4. 느타리는 데쳐 찢어 놓고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놓는다.
5. 고춧가루에 육수, 마늘, 생강, 청주, 국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찹쌀가루는 물을 넣고 풀어 놓는다.
6. ①의 닭날개에 육수를 부어 끓으면 양념, 콩나물, 미나리, 느타리, 대파, 고추를 넣어 버무려 간이 골고루 베이게 하고 찹쌀물을 부어 걸쭉하게 하여 그릇에 담고 통깨를 뿌린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12		10	
		11			
2				9	8
			6		
3	4		7		
	5				

◇가로풀이

- ① 서 있을 때나 앉을 때 발의 자세를 예의범절에 맞게 취함
- ②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사람
- ③ 자기의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
- ⑤ 경계하여 조심하는 마음
- ⑦ 장기에서 외통장군이 되게 두는 수
- ⑨ 가축을 길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
- ⑩ 얼굴은 돌리지 않고 눈알만 옆으로 굴려서 보는 눈
- ⑪ 신문사나 잡지사 따위에서 주로 취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서

◇세로풀이

- ① 신발에 붙어 있는 오물을 제거하고 소독약을 고루 묻히기 위한 방역 도구로, 깊이가 낮은 케이스 위에 살균소독액을 담가놓은 소독기구
- ④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 ⑥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 ⑧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겪어 세상일에 경험이 많음을 이르는 말
- ⑩ 남이 하는 일이나 말을 옆에서 거들어 줌
- ⑫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

66호 정답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양 계
비법전수계사의 주령별 환기량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육계는 40g 정도의 병아리가 35일 전후에 1.5~2.0kg 정도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주령이 경과함에 따라 계분의 배설량이 많아지고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스 농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계절별, 주령별 환기량에 맞게 환기를 해야 하는데, 계사의 구조, 일령, 외적인 기후조건, 사양관리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환기를 해야 한다. 겨울철에도 육계의 경우 1일령에 수당 0.04cfm의 환기를 해야 하며 10,000수를 사육하는 계사는 400cfm 정도의 환기를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내부의 유해가스 등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최소환기기 동안에 입기구를 막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기팬 5~10% 최소환기를 할 경우에는

위쪽으로 공기가 흐르지 않고 계사 바닥으로 찬 공기가 떨어지게 되므로, 환기량별로 입기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타이머를 이용하여 입기구 크기만큼 일정시간 동안 팬을 돌려서 찬 공기가 위쪽으로 잘 입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제(쥐잡기) 실시

